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放(놓을 방) 學(배울 학)

방학,
배움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아야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우기 위한 쉼.

움직이는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바삐 뛰어 온 삶
잠시 쉼표를 찍어 보세요.

201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5 인천교육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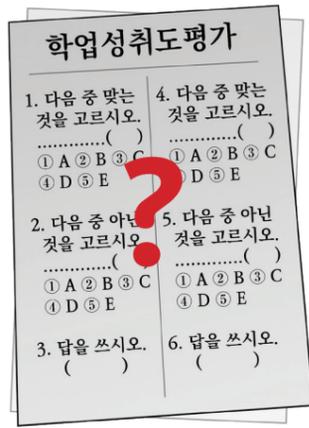


등교시간 정상화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간은 1교시였습니다. 아직 잠이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힘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청소년은 저녁형이며 아침잠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 충분한 수면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학교폭력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8:40부터 9:00 사이로 등교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는 큰 변화가 없거나 10분 정도, 중학교는 20~30분, 고등학교는 30분~50분 정도 등교시간이 늦추어졌습니다.

학생 자율 결정 존중

두발규제 개선, 정규교육과정외 방과 후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교육청의 권고에 많은 학교가 동참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학생들은 자율에 따른 책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시민은 민주적인 학교에서 길러집니다.



성장과 학습을 돕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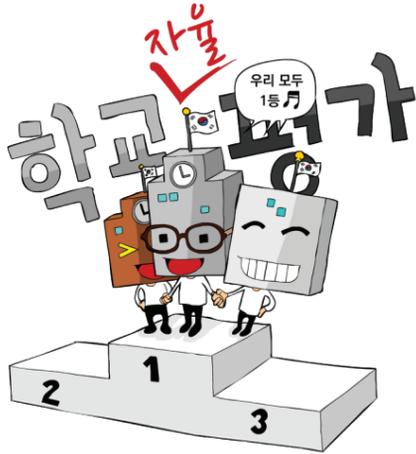
“시험은 기술이다.” “시험 점수가 그 사람이 능력을 전혀 나타내주지 않는다.”

(EBS 교육대기획 다큐멘터리 『시험』중에서)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차이는 시험치고 까먹느냐, 시험 치기 전에 까먹느냐의 차이” 라고 말합니다. 탐구, 토론, 체험 등 좋은 배움이 있는 깊이 있는 수업도 시험이란 벽 앞에 늘 좌절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일제형 정기고사를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의 과정을 돕는 평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을 수업을 진행하는 자유학기제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점수를 묻기보다 오늘 배움을 묻는 어른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행복배움학교, 남구 교육혁신지구 등 교육혁신

창의적인 교육과정, 참여와 협력이 가득한 수업,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운영, 공동체 생활교육의 가치가 올 한해 10곳의 행복배움학교에서 각각의 빛깔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점수로 서열화하지 않고, 특성으로 개별화하는 수업. 지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지혜로 협력하는 배움을 열망해온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구 교육혁신지구는 남구청과 학교가 손을 맞잡고 '가고 싶은 학교, 살기 좋은 마을'을 일구는 사업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학교 통제의 도구였던 학교평가를 학교자체 자율평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좋은 평가결과를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기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감사관은 교육청 외부 인사를 임용하였으며, 공모제 교육장을 시행하여 열린 행정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사무관과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역량심사평가 비중을 늘리고 교감 연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동료평가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분들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천교육연구소 설립을 통한 중장기적 교육정책 비전 수립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부설 인천교육정책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학교에 더 밀착된 연구, 아이들을 웃음 짓게 하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난 1년동안 2015 인천 교육정책 시민인식조사, 2015 행복배움학교 성과분석,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탐색, 행복배움학교 수업중심문화 정착 과정 탐색 등 굵직한 연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단기적, 즉흥적인 정책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정책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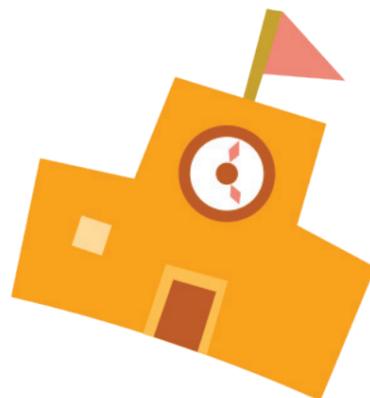
■ 학생 맞춤형 진학 지도

진로진학 특강과 매주 토요일 교육청에서 개최하고 88개 대학이 직접 참여한 대학 입학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 6,000명이 2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서해5도, 강화도로 교육청이 찾아가는 진학 상담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51개 대학과 충청지역 24개 대학이 참여한 수시박람회 12,000여명, 수도권 및 지방 50개 대학이 참여한 정시박람회에는 5,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의전형 캠프는 교사, 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28개 대학의 모의면접, 모의 서류평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습니다.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교사들이 고등학교가 희망하는 시간, 장소, 대상, 내용, 강사를 선정하여 찾아가 150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 달라진 학교문화

교문 앞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지시하던 아침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이 파이브를 하며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학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전달에 익숙했던 학생과 선생님은 이제 둥근 탁자에 앉아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합니다. 지시 전달이 아닌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 학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의 잘나가는 행복배움학교 교장선생님 세분을 만났다. 혹시나 말씀을 너무 아끼실까봐 학교 자랑부터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끝이 없다. 학교 자랑부터 솔직한 어려움까지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어석원_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 먼저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느낀 힘든 점이나 바람이랄까? 다른 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백 석남중 교장: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적인 학교경영이다. 앞서 김병회 교장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장의 눈으로 볼때 고쳐야 할 경우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 세운 교육 비전에 맞는지 따져보고 비전에 맞추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일부 경기도 혁신학교 교장은 허수아비로 전략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결국 최종 책임에 교장에게 있으니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중요성만큼 최소한의 조정권은 필요하다.

행복배움학교의 정착을 위해선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

꼭 밖에서 하는 체험활동이 아니어도 된다.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말로 교실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디자인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학교 김찬 부장과 '배움의 공동체' 운영진에 속하면서 1년에 4번정도 운영진 워크숍에 다녀온다. 2박 3일 동안 맨 공부만 하다 오니 힘들지만 돌아올 때는 새로운 배움으로 뿌듯하다. 교장이 철학을 먼저 배워야 한다.

혁신학교 힘들지 않냐고 자주 묻는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선생님도 학생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김병회 동수초 교장: 행복배움학교는 이미 성공했다. 당장 몇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곧 자연스레 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업무경감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 우리 학교는 업무전담부장 몇 분이 학교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한다.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급 인력이 행정업무 처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그분들이 가진 가르치는 노하우를 더 펼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행복배움학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초기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대한 외부 관심이 높다보니 기존의 정책연구학교처럼 또다른 성격의 업무부담이 생긴다. 운영결과물 제출 등 각종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니 힘들다.

시작부터 모든 교직원이 행복배움학교를 원하지는 않았다. 우리 학교 역시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할 때 찬성이 받을 것 같았다. 소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교사다. 그래서 뭔가 의미를 갖고 행복배움학교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려는 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 하지만 그걸 나쁘게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한 방향만 바라본다면 어느 순간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학교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은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긴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의 1/3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충분히 교감하니 속도가 붙는다. 지난달에 행복배움학교 자체 평가회를 했는데 외부 일정으로 좀 늦게 갔다. 몇 가지 협의할 사안이 오래 걸릴거라 예상했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있었다. 배움의 공동체나 회복적 생활지도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학교문화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 연착륙이란 말도 했다. 서서히 가야한다는 말이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고 있다. 학교장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차양막 공사를 원하길래 교육청까지 접촉해서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간다. 아침 조회를 없애고 대신 독서, 생일파티 등 아이들의 시간을 넣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하기에 아이들은 지각도 안하고 뛰어온다.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이 되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었더니 학생회는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 우리는 PC지킴이 봉사단이 있는데 교내에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의 보안관리를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한다. 스스로 인정 받았다고 생각하며 굉장히 좋아한다.

교사 간의 갈등,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등 어려움이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 답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하용 동암중 교장: 저는 2012년부터 동암중에 근무하며 교사들과 많은 소통과 공감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지금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저부터 열고 표출하는 편이다. 우리 학교는 이런 방향이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전체 교사

인천교육소식

우리 동네 행복배움학교는 어디?

2016년 새로 시작하는 행복배움학교 10개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16년부터 운영될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 10개교를 선정, 발표 했다. 초등 행복배움학교는 석암초, 용유초, 송원초, 도담초, 천마초, 내가초 등 6개교이며 중학교는 부일여중, 부평동중, 명현중 3개교이다. 고등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종고등학교가 행복배움학교로 선정되었다.

시교육청은 올 5월에 지정된 '혁신학교 준비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2016년 행복배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외부인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들은 1차 보고서 심사, 2차 현장 실사로 혁신학교 추진 역량, 구성원들의 자발성, 관리자 추진 의지, 준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올해 시작된 10개교를 합하여 내년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

교, 고등학교 1개교, 총 20개교가 행복배움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 행복배움학교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민주적인 학교운영, 공동체를 회복하는 생활교육의 가치에 따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교육 혁신 모델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행복배움학교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일반 학교의 '혁신학년'과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동래 교육혁신과장은 "행복배움학교는 당장의 성과보다 함께 일구어가는 과정과 경험이 중요하다. 행복배움학교들이 일반 학교와 교류하면서 즐거운 배움,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과정을 함께 일구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신설학교 2016년에는 6개, 2017년은 4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7년까지 10개의 신설 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학교 신설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다수의 학생이 유입되거나 기존지역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게 되며, 설립규모의 적정화, 교육환경, 통학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통상 개교 5년 전부터 중기설립계획,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개교 3년 전에 개별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학교는 평균 300억 원의 설립비가 소요되고 개교 후에는 연간 30억 원 내지 50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적정'하다고 승인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이후 인천시의회에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설립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후 부지 매입, 설계, 시설 공사 등을 거쳐 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아래 표는 교육부와 인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학교이다.

학교설립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420-7631)로 문의하면 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 '학교설립기획과' 게시판(FAQ)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설립기획과 학교설립팀

개교예정일	학교명	위치	학급수	비고
16년 03월	인천연송초등학교	연수구 송도동 18-4	24(1)	
16년 03월	인천마전고등학교	서구 마전동 199	24(1)	남고
16년 03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연수구 송도동 115	15	공학
16년 09월	인천예송유치원	연수구 송도동 115-1	12(3)	
16년 09월	인천용학초등학교	남구 용현동 604-1	36(1)/5	
16년 09월	인천청선학교-특수학교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30	공학
17년 03월	(가정유치원)	서구 신현동 213-46	9(1)	(가칭)
17년 03월	인천첨단초등학교	연수구 송도동 192-3	36(1)/5	
17년 03월	인천예송중학교	연수구 송도동 114-1	30(1)	공학
17년 09월	(남희학교)-특수학교	남구 도화동 26-37	30	공학

※ 학급수 : 일반(특수) / 병설유치원 학급수

자유학기 = 나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시간 2016년 자유학기제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세 학기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기를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시행되며 관내 중학교들은 학교별 실시 시기를 정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학교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하여 학생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와 자료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등으로 구성되는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이기 때문에 시·군·구 등 유관단체들의 협조아래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 및 공유가 한창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주제별로 체계적인 연수를 지원하였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시범 실시 되었으며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로 꿈과 끼를 찾고 키워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비록 한 학기 뿐인 자유학기제지만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윤숙_학교혁신팀 장학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다
-12월 12일 연수고에서 진행된 학부모원탁토론회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다
-11월 23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한발 빠른 움직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 행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1월에 201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장학계획 등을 안내하고 2월 첫 주에는 교원의 인사발령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새학년 시작 이후에도 이어진 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한 연수 및 회의를 1월, 2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그동안 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안내가 3월까지 이어지고 인사발령 또한 2월 중순에 이루어져 새학년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교원의 인사발령 시기 조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나 학년 편성 등 새학년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교육청 차원의 각종 업무 계획이 미리 발표되어 학교교육과정이나 학년교육과정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래 교육혁신과 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한발 빠른 교원 인사발령을 비롯하여 3월에는 회의소집을 지양하고 공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설명했다.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2015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제작에 함께한 분들입니다.

- 편집위원: 박상민 옥련중 교사, 박상영 한빛초 교사, 박진희 산곡남중 교사, 정인영 부평초 교사
- 편집실무: 어석원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파견교사

2016학년도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안내

2016학년도 개교예정인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기타 사유로 배우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학업의 장을 마련하고, 정규 공립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모집 정원** 신입생 남녀 50명(1학년 2학급, 학급당 25명)
- 전형 방법** 무시험 서류 전형, 연장순
- 수업일수** - 수업일수 : 190일 이상 (출석수업 20일 이상)
- 출석수업 : 한 달에 2번(1,3주 토요일)운영
- 지원자격** -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모집기간** 2016. 1. 11(월) ~ 1.22.(화)
- 원서교부** - 구월여자중학교 방문
- 구월여자중학교 홈페이지 (pttp://gwg.icems.kr/)
공지사항 1009에서 내려받기
- 원서접수** 교무실 및 행정실 방문접수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중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문의처** 교무실 : 032-433-4005
행정실 : 032-433-4004

학생과 부모가 만날 새로운 세상

신입 학부모님!~ 집중!

초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 지침서



초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한가득 일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린 것만 같은 우리 아이, 긴장과 설렘의 하루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신혜영_동수초 교사

1학년 아이들은 감성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기억하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학습이 가능해 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개별 행동을 많이 하고 협동보다는 경쟁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권위에 순응하며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므로 어른들의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나기에 교과공부나 받아 쓰기 몇 점으로 아이를 평가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배우고 터득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믿어 주고 잠깐의 결과보다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멀리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바른 생활 습관은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의 기본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밤늦게까지 하는 활동은 지양하고 텔레비전, 스마트폰의 사용 약속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가방 챙기기, 혼자 옷 입고 벗고 정리하기, 식사 후 양치하기 등의 기초 생활 습관을 미리 살피주시고 급식을 하므로 젓가락질 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되도록 대변은 아침에 집에서 보고 가기, 소변이 마려울 때는 참지 말고 선생님께 말씀 드리기 등을 잘 알려 주시고 예비소집일이나 입학식 때 부모님과 함께 화장실을 둘러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 학용품으로 가방, 신발주머니, 실내용, 필통, 연필, 색연필, 크

레파스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방과 신발주머니는 가볍고 튼튼한 것, 실내용은 슬리퍼모양이 아닌 아이 발에 잘 맞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필통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고, 색연필은 12색 정도, 크레파스는 24색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책은 담임 선생님마다 쓰는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안내를 받은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용품에는 하나하나에 이름을 써서 잃어 버렸을 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통신문, 알림장.... 학교가니 주는 종이들은 왜 이리 많은지... 의 무교육을 처음 시작하는지라 학교에서 알아야 할 정보도 학부모가 알아야 할 것들도 많은 1학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써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세요. 각종 안내장을 참고하면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교과내용이 나와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할 준비물도 알 수 있습니다. 매일의 알림장도 빠짐없이 확인해주시면 담임선생님과 아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기본이 됩니다. 최근 교육청이나 학교의 소식이 연동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학교라는 낯선 환경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어려움이 될 수 있습

니다. “다들 잘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짝과의 다툼으로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고 때때로 엄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네가 생각도 마음도 많이 자라서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세요. 부모로서도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도 처음이지만 나도

처음인 걸요. 아이는 말로 하지 않아도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곤 합니다. 부모 또한 편한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질문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 들으며 찬찬히 설명해주는 시간 말입니다. 아이가 안정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몸으로, 마음을 담은 대화로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신발정리, 심부름, 실내용 같이 빨기, 가방 정리 등)을 부여해주면서 칭찬해주고 긍정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습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 글씨를 잘 못 쓰는 아이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학교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자 보고 읽기이고, 이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그림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읽기가 가능하다면 소리 내서 읽도록 하여 옆에서 들으며 격려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교과서는 사고력과 스토리텔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상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보다는 아이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여유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 준다면 시켜놓고 내버려두지 말고 되도록 옆에서 지켜봐주시거나 확인을 해주세요. “잘 못 할까봐”가 아닌 꼬박꼬박 제 때하는 습관 키우기와 혼자 해내는 과정을 지켜보고 격려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숙제인 경우에도 대신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함께 하며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방법에 대해 대화하며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아이들과 교실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의 행복함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성장으로 돌아오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학습지 한 장, 두 장이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냈는지 가능하는 척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 하루,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보내는 하루, 양치를 꼼꼼히 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하루가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리는 만큼 아이는 더 곧고 빠르게 자랍니다. 아이의 눈을 더 많이 바라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편안한 마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멋지게 보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응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비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

이윤정_산곡남중 교사

1.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안내

▶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예방은 알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 본인 혹은 친구의 피해상황을 문제 발생 즉시 담임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신고하기
- 학교폭력 : 신체폭력,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성폭력, 정서적 괴롭힘 (괴롭힘, 따돌림, 언어폭력)

▶ Wee 클래스 상담실

- 대면상담 : 상담실 직접 방문 또는 상담 신청서 작성
- 이용시간 :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후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
- 상담내용 : 가족, 대인관계, 학업, 정서, 성격, 학교적응, 약물 오남용, 인터넷 과다 중독 등

▶ 진로진학 상담실

- 진로진학상담실 직접 방문 및 상담신청서 이용(학부모님은 방문 및 전화 상담)
- 상담내용 : 진로심리검사 및 해석, 진로 탐색, 직업정보, 진학상담, 내신성적 관리, 학습방법, 학부모 상담 등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 이런 내용을 보여 드립니다.

학교정보	학생정보	학부모 상담관리
학교기본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반별시간표, 연/월간 학사일정, 월/주간 급식, 가정통신문 등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별활동, 성적 자료(통지표, 고사별 정·오답표, 성적 분석표), 진로/상담자료, 건강기록부	선생님과의 상담

▶ 상세한 학교소식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가정통신문란을 확인하세요. 학교별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알리기도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방법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 경조사 출석인정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알찬 학교생활을 위한 안내

▶ 교과별 평가계획 안내

- 학교별로 학년초에 학교알리미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교과별 평가계획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한학기의 성적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지필평가는 선택형, 서술·논술형으로 이루어지며 수행평가는 포트폴리오, 탐구과정 평가, 논술, 문제해결능력 등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학기초 안내되는 교과평가계획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영역과 성취기준 등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입전형 내신성적 산출방법(2015학년도 기준)

※ 교과 성적: 1학년-20%, 2학년-30%, 3학년-50% 적용(총 240점)

<p>1) 출석 성적산출</p> <p>① 전 학년 합산하여 출석 성적 총점은 21점</p> <p>②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무단결석 일수</th> <th>출석 성적</th> </tr> </thead> <tbody> <tr> <td>0 일</td> <td>21점</td> </tr> <tr> <td>2일까지</td> <td>20점</td> </tr> <tr> <td>4일까지</td> <td>19점</td> </tr> <tr> <td>6일까지</td> <td>18점</td> </tr> <tr> <td>f</td> <td>f</td> </tr> <tr> <td>21일 초과</td> <td>10점</td> </tr> </tbody> </table>	무단결석 일수	출석 성적	0 일	21점	2일까지	20점	4일까지	19점	6일까지	18점	f	f	21일 초과	10점	<p>3) 자율·동아리·진로활동 (이하 '자동진') 성적산출</p> <p>① 전 학년 자동진 성적 총점은 15점 (학년당 5점).</p> <p>② 학년당 점수 5점 중 2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3점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p> <p>③ 가산점 부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 회장, 부회장, 학생회간부, 각종 교내대회 - 동아리 : 동아리반장, 백마제(공연, 시화전시등) - 진로 : 진로활동 (미래명함만들기, 진로체험보고서등)
무단결석 일수	출석 성적														
0 일	21점														
2일까지	20점														
4일까지	19점														
6일까지	18점														
f	f														
21일 초과	10점														
<p>2) 행동발달 성적산출</p> <p>① 전 학년 행동발달 성적의 총점은 9점 (학년당 3점)</p> <p>② 학년당 점수 3점 중 2점은 기본 점수로 하고, 1점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p> <p>③ 가산점 부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행상, 선행상, 모범활동 등의 표창을 받은 자 	<p>4) 봉사활동 성적산출</p> <p>① 전학년 봉사활동 성적의 총점은 15점 (학년당 5점).</p> <p>② 봉사활동 평가의 매 학년별 기준에 따른 점수는 4점으로하고, 1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p> <p>③ 봉사활동 평가 기준 시수(학년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시간</th> <th>20시간 이상</th> <th>11시간 ~ 19시간</th> <th>0~10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4점</td> <td>3점</td> <td>2점</td> </tr> </tbody> </table>	시간	20시간 이상	11시간 ~ 19시간	0~10 시간	점수	4점	3점	2점						
시간	20시간 이상	11시간 ~ 19시간	0~10 시간												
점수	4점	3점	2점												

언론에 비친 인천교육



홈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34개교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교육청·남구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2015년 01월 16일 금요일 제3면



인천시교육청과 남구청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는 17억 원을 들여 공교육 혁신모델 구축 등 4개 영역 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홈 > 뉴스 > 인천

“한 아이도 포기 않는다” 학업중단 대책 '우수교육청' 선정

숙려제 참여 학생 55.3% 지속
시교육청, 특별교부금 1억원

2015년 03월 17일 20:49:17

학업중단 감소율과 학습지속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겠습니다.



전국 > 인천

인천시교육청, “일선학교 맞춤형 지원행정 체제로 바꾼다”

2015-02-12 11:11:08 송고

과거 지시와 관리 위주의 교육행정을 버리고 학교별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행정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학교 현장도 느낄 수 있는 교육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 >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인천시교육청, 행사·의전 간소화 추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571호] 2015년 01월 24일 (토) 12:23:04

인천시교육청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행사를 위해 의전 간소화 추진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학교에도 축사 및 초청인사 최소 등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업무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등록 : 2015-02-26 20:14

인천 학생들 새학기부터 등교 늦게하고 두발규제 완화

3월 새학년 시작부터 인천지역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오전 8시 40분부터~9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머리카락 길이는 규제하지 않고 모양이나 색깔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학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